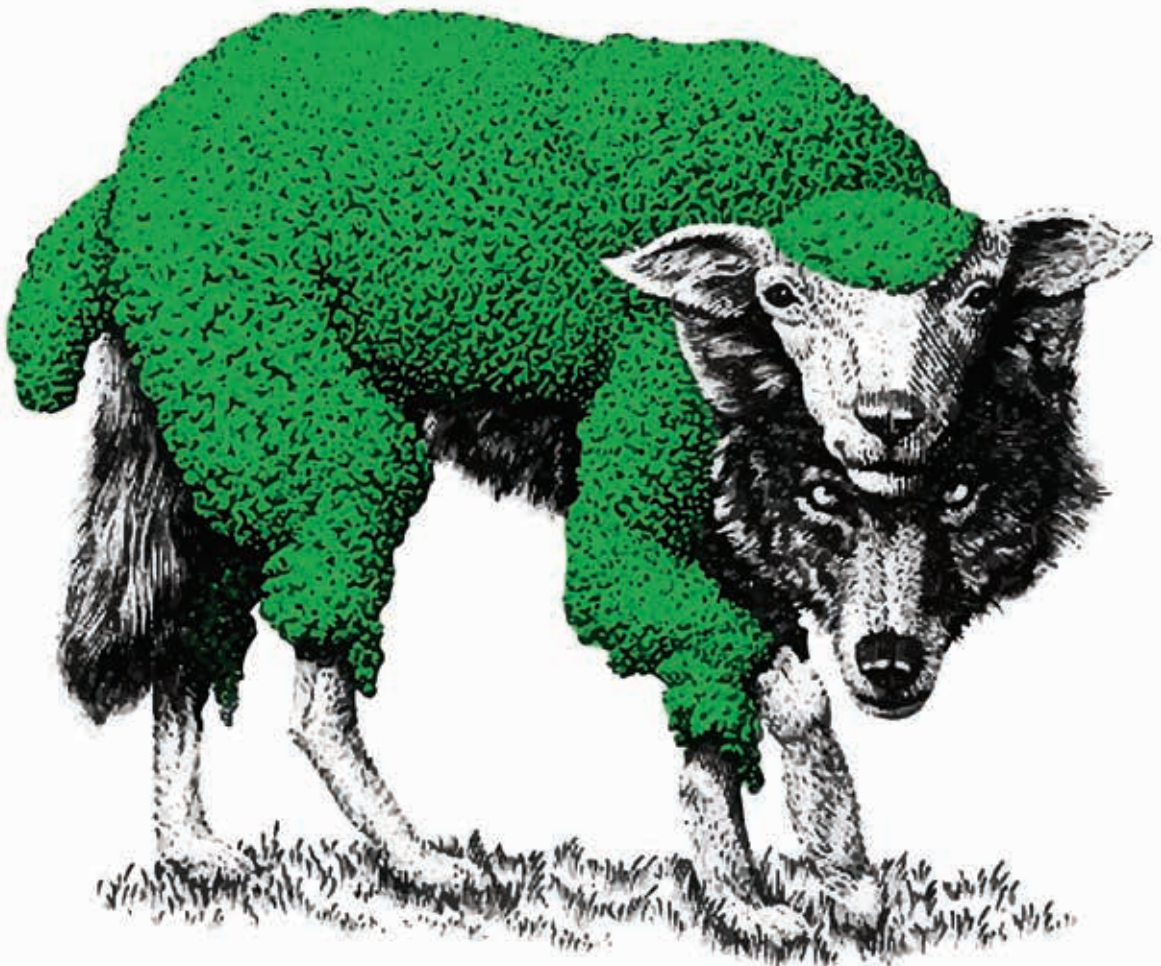


# 자연기반해법 지구의 벗 입장문



10월 | 2021

자연기반해법 지구의 벗 입장문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mobilise resist transform*

# 자연기반해법 지구의 벗 입장문



10월 | 2021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은 73개국의 회원 단체와 수백만 명의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풀뿌리 환경 연맹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를 기반으로 한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상에 있습니다. 공정함과 사람들의 권리가 실현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존엄하고, 온전하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그립니다. 이 곳은 사람들의 주권과 참여에 바탕을 둘 것입니다. 이 곳은 사회·경제·젠더·환경 정의에 기초하고 신자유주의, 기업 세계화, 신식민주의, 군국주의와 같은 모든 형태의 지배와 착취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으로 아이들의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요 저자: Kirtana Chandrasekaran, Nele Marian, Isaac Rojas, Sara Shaw. 연구조사: Simon Counsell.

디자인: contact@onehemisphere.se 커버 이미지: Nicola's Medina.

번역: 허광진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내용 감수: 최진우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

최종 감수 및 편집: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담당 활동가

## 목 차

요 약	3
1. 자연기반해법의 개념과 추진 배경	4
자연기반해법의 정의	5
2. 누가, 무엇이 자연기반해법을 주도하고 있는가?	6
나무 또 나무 - 자연기반해법은 단일종 식재의 확대를 의미한다	6
금융 투자 메카니즘으로서 자연기반해법	7
기업의 탄소상쇄 해법으로서 자연기반해법	7
자연기반해법과 자연의 화폐화	9
3. 자연기반해법은 토지와 영토의 강탈을 초래한다	10
4. 자연기반해법은 탄소배출 문제의 원천적 해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 조치를 차단한다	11
5. 자연기반해법은 산업형 농업을 정당화 하고 농생태학을 차용한다	12
6. 자연기반해법은 사람들의 주권과 권리를 위협한다	14
7.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진정한 해법	15

[www.foei.org](http://www.foei.org)

*mobilise resist transform*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Secretariat  
P.O.Box 19199, 1000 GD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31 (0)20 6221369  
web[at]foei.org  
Follow us: twitter.com/foeint  
facebook.com/foeint





# 자연기반해법 지구의 벗 입장문

지구의 벗 인터내셔널(이하 지구의 벗)은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이하 NBS)를 거부한다.

NBS<sup>1</sup>는 기후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sup>2</sup> 이 글에서는 NBS의 개념이 왜 위험하고 해로운지 서술할 것이다. NBS의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이탄지 복원에서 단일종 식재에 이르는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다. 즉 NBS는 그럴듯한 용어와 아름다운 이미지를 덧댄 못된 발상으로 '양의 탈을 쓴 늑대'인 것이다.

NBS의 허울 아래 탄소와 자연의 신식민주의, 신뢰할 수 없는 시장 메카니즘과 기업의 그린워싱이 공고히 자리하고 있다. NBS는 문제의 주범을 찾는 대신 소위 해법이라며 자연을 도구화한다. 이는 토착민, 소농, 영세 어민과 그 외 많은 지역사회의 삶과 역사적 관행을 기업의 파괴 행위에 대한 상쇄로 도구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강탈의 공세를 가능케 한다. 시장화된 시스템으로서 NBS는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탄소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과학에 의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절히 보호, 보존, 복원해야 하는 본질적인 필요와는 맞지 않는다. NBS를 통해 자연과 생태계가 더 이상 악화되고 손실되지 않을 것인지 확실치 않다.

많은 사람과 단체 사이에서 자연에 대한 진실되고 환영할 만한 관심에서 비롯한 NBS에 대한 지지가 늘어가고 있지만, NBS는 답이 아니다. 이 개념은 정부와 기업이 자신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움켜잡은 것이다.

NBS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따라서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지구의 벗은 NBS가 다음과 같은 연막을 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 주로 기업과 선진국들이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 사람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 '넷제로(net zero, 순 배출량 0)'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no net loss of biodiversity)'와 같은 그럴듯해 보이는 상쇄 제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오염 기업이 새로운 자연 기반 시장 메카니즘과 제도를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도록 허용한다.<sup>3</sup>
- 2030년까지 NBS가 이산화탄소 37%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수치에 기반하고 있다.
- 저개발 국가의 보호구역 보전을 위한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대형 보전 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접근법은 산림관리에서 지역사회와 토착민의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는 REDD와 REDD+(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새로운 버전에 불과하다.

- 너무 모호하게 정의된 개념이기 때문에 단일종 식재나 산업형 농업과 같은 매우 해로운 관행이 정말로 우선순위에서 확대되어야 하는 소규모의 우수 관행과 함께 확산될 우려가 있다
- 농생태학(agroecology) 및 지역사회 산림관리(CFM)와 같은 진정한 해결책을 변질/오염시킬 우려가 있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는 파괴적인 방법들과 한데 묶어 그 중 기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들만 엄선하여<sup>4</sup> 불투명한 시장 중심 체제로 연결하기 때문이다.
- 화석연료, 농기업, 플랜테이션 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형태의 그린워싱의 일환으로 NBS를 끌어들이고 있다. 기업은 NBS에 투자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파괴적인 사업 관행을 확대하면서 탄소 배출을 원천적으로 감축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의 벗은 NBS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 저개발 국가의 생물다양성 손실 및 토착민과 지역 사회, 소농과 기타 농촌 공동체에 대한 인권 침해를 의미하는 대규모 단일종 식재 확장과 토지 수탈.
- 추가적인 자연의 화폐화<sup>5</sup>
- 새로운 유전자 기술을 포함한 집약적 농업과 소위 'sustainable intensification'라 불리는 '지속가능한 집약적 농업'에 대한 거듭되는 정당화<sup>6</sup>
- 탄소 시장의 엄청난 성장과 실제로 배출량을 줄이지는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상쇄 제도.
- 정부와 민간 부문 관계자 모두 화석 연료 배출량 증가를 그린워싱하고 은폐함으로써 과학에 근거해서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조치 차단
- 기후, 생물다양성, 식량 위기에 대해 실질적이고 잘 알려진 구조적 · 총체적 해결책을 실행하려는 의지와 자금의 부족.

지구의 벗은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농생태학, 지역사회 산림관리, 화석연료 추출 중단, 지역사회 기반 재생에너지 지원 등과 같이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에 대한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추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sup>7</sup>

1 FOEI는 NBS가 '자연기반해법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는 NBS를 해법이라고 부르는 것에 반대하며 이 보고서의 목적과 부합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2 NBS는 이 브리핑에서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과 '자연기후해법(natural climate solutions)' 모두를 의미하지만 둘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해설자들도 있다.

3 지구의 벗은 '넷제로 탄소배출(net zero carbon emissions)'과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no net loss of biodiversity)'이라는 개념을 모두 거부한다. <https://www.foei.org/resources/publications/chasing-carbon-unicorns-carbon-markets-net-zero-report> and <https://www.foei.org/features/no-net-loss-biodiversity>

4 농생태학의 차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s://www.foei.org/resources/publications/junk-agroecology-food-systems>

5 자연의 화폐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s://www.foei.org/resources/publications/nature-for-sale>

6 지속가능한 집약적 농업과 새로운 유전자 기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s://www.foei.org/resources/publications/publications-by-subject/food-sovereignty-publications/a-wolf-in-sheeps-clothing>

7 우리는 일부 NGO들과 정말로 자연 복원을 목표로 하는 현지 프로젝트에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설명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지구의 벗은 새로운 위협이 되는 시장 메카니즘을 강요하고, 배출을 지속하고, 자연을 도구화하기 위해 정부와 오염자들이 추진하는 것과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자연기반해법의 개념과 추진 배경



인도네시아 중부 칼리만탄  
팜오일 플랜테이션.  
© Victor Barro / Amigos de la Tierra

자연기반해법(NBS)과 자연기후해법(NCS)는 지난 수년간 기후와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또 최근에는 식량 체계의 전환 논의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유엔에 따르면 “토지에서 우리의 관행을 바꾸는 것만으로 2030년까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배출 저감의 30%를 이행할 수 있다”<sup>8</sup>라고 한다. 이는 주요 의사결정자들과 일부 NGO 및 기업의 리더들이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019년과 2020년 기업들 사이에서 ‘넷제로’ 서약의 붐이 일어났고 이들 중 상당 부분이 NBS에 대한 투자와 연계되어 있다.

NBS가 ‘해법’으로 홍보되면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법인지 묻는 것이 중요해졌다. 대부분의 답변은 ‘자연’이 저장할 수 있는 탄소의 양과 관계가 있다. NBS가 해답인 양하는 문제는 주로 기후위기이다. 생물다양성 손실, 기아 및 영양실조, 불평등의 위기가 있다는 사실-모두 유사한 위기들로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

더불어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 간의 연결성 그리고 건강과 식량생산 및 불평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sup>9</sup>

NBS는 어떻게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저장하며 증가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의 전체적인 영향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있다.

입장문 서두에서 밝혔듯이 NBS의 개념은 그럴듯한 용어와 아름다운 이미지로 포장한 ‘양의 탈을 쓴 늑대’이다. 새로운 토지 강탈을 가능케 하면서 기업의 파괴행위를 상쇄시키기 위해 토착민, 소농, 영세 어민을 비롯하여 많은 공동체의 삶과 역사적 관행을 도구로 삼고 있다. 시장경제화된 NBS는 투명하지 않다. 과학에 의거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적절한 보호, 보전 및 복원 그리고 원천적인 탄소 저감에서 벗어난 것이다. NBS가 자연과 생태계가 더 이상 파괴되거나 손실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 자연기반해법의 정의

NBS에 대한 기존의 정의는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해석과 선택의 여지가 많다. NBS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또는 변화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복원하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제공해준다.”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후 행동을 위한 효과적이고 장기적이며 비용 효율적이며 전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접근법으로 일 년에 12기가톤의 온실가스를 제거한다. 다양한 부문과 지역의 기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며 전세계 경제에 2.3조 달러 규모의 생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2019 유엔 기후 정상회의

“자연기후해법(NCS)은 탄소배출을 저감할 수 있고 숲과 초지 및 습지에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 Nature4climate multistakeholder initiative

이들 중 그 어떤 것도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가 NBS에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정부, 기업, 사회가 전체로서 지속적이고 단합된 행동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복잡한 문제에 대한 마법과 같은 해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NBS는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마치 과학이나 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해 대단히 쉬운 기술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NBS는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권력과 기득권이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복잡한 현실을 감추고 있다. 이런 단순성은 매력적일 수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위기들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변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뢰할 수 없는 REDD와 REDD+를 연상시킨다.<sup>10, 11</sup>



2019년 마드리드 제25차 당사국총회에서 탄소시장과 같은 잘못된 해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지구의 벗과 동맹들.  
© Victor Barro / Amigos de la Tierra

8 유엔 뉴스, 2019. 자연, 기후변화와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 2019년 9월 19일 <https://news.un.org/en/story/2019/09/1046752>

9 IPBES- IPCC 공동 워크숍, 2021년 6월. <https://ipbes.net/events/launch-ipbes-ipcc-co-sponsored-workshop-report-biodiversity-and-climate-change>

10 정책저항: 안정화와 논쟁사이의 REDD+, Journal of Political Ecology <https://journals.librarypublishing.arizona.edu/jpe/article/id/2238/>

11 학제간 자연기반해법 이니셔티브는(NbSI)은 NBS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사례에서처럼 임업을 위한 자금이 지배되어서는 안된다고 규명한다. 또한 탄소 의존을 끝내기 위한 올바른 긴급조치를 대신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동의와 존중 및 혜택의 공평한 공유를 통해 설계되고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토착 공동체의 문과 및 생태적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그 효과와 이점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힌다.

# 누가, 무엇이 자연기반해법을 주도하고 있는가?

# 02



플랜테이션에 대한 자금조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지구의 벗 아프리카  
© Amelia Collins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NBS는 약 십 년 전에 국제 보전 분야에서 부상한 개념이다. 처음에는 보호구역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자금 조성의 수단으로 여겨졌다.<sup>12</sup> 규범적 발전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체제 안에서 수행되었다.

2016년경 미국에 기반을 둔 보전 단체들, 특히 '네이처컨서번시(The Nature Conservancy, TNC)'가 NBS를 강력하게 밀어 붙였다.<sup>13</sup> 2017년 이후 네이처컨서번시의 저자들이 주도한 문서에 기반하여 NBS가 2030년까지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배출의 37%까지 저감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sup>14</sup> '자연기후해법'(Griscom et al, 2017)이라는 논문은 많은 비판적 가정에 기반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당성 및 정치적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5</sup> 그럼에도 이 논문은 NBS 이행의 필요를 입증해주는 과학적 근거로서 계속해서 참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는 6억7천8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면적에 재조림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한다. 인도 면적의 두 배 또는 미국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크기이다. 이런 면적의 땅이 어디가 될 수 있는지 또는 이곳을 플랜테이션으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탄소 비용(도로, 기계, 비료 투입 등)이 얼마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다.

## 나무 또 나무-자연기반해법은 단일종 식재의 확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Griscom et al이 언급한 가장 큰 배출 저감의 방법은 숲, 특히 재조림과 관계되어 있다. 숲, 바이오 숯 그리고 경작지의 나무를 모두 합쳐서 숲/나무와 관련된 방법이 총배출 저감의 77%를 차지한다. 재조림만으로 필요한 감축량의 절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Griscom et al이 제안한 저감의 75%는 자연기반해법으로 REDD+의 브랜드 이미지를 새롭게 한 것에 불과하다.

요구되는 조림은 이윤추구의 기반 위에서 민간부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Griscom et al의 주장에 의하면 "자연 및 인공적인 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플랜테이션을 만들어서 민간부문을 재조림 활동에 끌어들이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큰 저감의 방법을 이행할 수 있으려면 민간 기업의 대규모 조림을 위한 대륙 스케일의 토지가 필요하고 자연적으로 재생되기 전에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미리에서 마루디에 이르는  
도로 근처의 팜오일  
플랜테이션.  
© Amelia Collins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이들이 농장에서 최초의 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그 최초의 작물이 거둘 수 있는 기후저감효과를 무력화하면서).

빠르게 탄소를 포집한다는 면에서-빠르게 자라는 외래 단일종과 유전자 조작 나무들을 넓은 지역에 심기 때문에-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겨지는 NBS는 생물을 관련시키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하자면 '생명공학적 해법'이고 지구공학적인 해법과 마찬가지로 주의를 요한다. '자연기반해법'은 해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자연적'이지도 않다.

### 금융 투자 메카니즘으로서 자연기반해법

국제탄소배출권거래협회(IETA)는 “민간분야의 적절한 규모의 투자를 가능케 하는 탄소배출권 시장”이라는 비전을 선언하였다. 영향력이 큰 유엔책임투자원칙(PRI)에 따르면 자연에 기반한 탄소는 금융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총 NBS 시장 가치는 잠재적으로 7조 7천억 달러로 추산된다... 프로젝트 개발자와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sup>17</sup>

NBS 옹호자들의 서술에서 다음을 알 수 있다:

- REDD+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나무 기반 탄소 격리 및 상쇄를 중심으로 한 REDD+의 아바타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지난 10년간 REDD+는 기후변화를 멈추지 못했고 영토 강탈을 가속화하는 모델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 탄소시장과 민간부문 투자에 의해 뒷받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불확실한 시장기반제도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적절한 기금이 필요할 때 보전, 구체적으로는 보호구역을 위한 기금을 증액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여겨진다.

### 기업의 탄소상쇄 해법으로서 자연기반해법

NBS는 거대 기업의 이익, 화석연료 업계와 농기업을 비롯하여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 국제탄소배출권거래협회(IETA),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와 같은 단체들에 우호적이다.

화석연료 기업, 항공사, 농기업들이 화석연료 추출과 기업형 농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NBS 확대에 대한 공약을 해 온 것이다. 오염 배출국들은 파리 협정 준수를 위해 배출을 저감하기보다는 탄소격리를 정당화하면서 점점 더 NBS에 의존하고 있다. NBS는 기업과 국가가 제로 배출 달성을 위한 실천적 행동이 부족한 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의존하는 '넷제로' 기후 서약이 확산되는 현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NBS에 대해 분명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업과 단체는 다음과 같다: BP, 쉘, 에퀴노르, 토탈, 쉘, 에니, 다우케미칼, 바이엘, 보잉, 마이크로소프트, 노바티스, 프록터 앤 갬블, HSBC, 우드사이드, 인터내셔널 페이퍼, 올람, 다농, 유니레버, 마스, 어스 클라이언트, 시스템익,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세계경제포럼, 국제탄소배출권거래협의회.



항공사는 화석연료 추출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주의를 돌리기 위해 NBS 확대에 대한 약속들을 해왔다. © istock

12 IUCN, 2009a. 시간이 없다 - 포스트 2012 기후변화체제에서의 자연기반해법 활용. UNFCCC 당사국총회의(COP 15), 2009년 12월 7일-18일, 덴마크 코펜하겐. <https://ipbes.net/events/launch-ipbes-ippcc-co-sponsored-workshop-report-biodiversity-and-climate-change>

13 TNC, 2016. 잊혀진 기후해법, TNC 웹사이트. 2016년 2월 17일. <https://www.nature.org/en-us/what-we-do/our-insights/perspectives/the-forgotten-climate-solution>

14 Griscom et al, 2017. 자연기후해법. PNAS. 2017년 10월 31일. 114권 44호. 11645-11650. <https://www.pnas.org/content/114/44/11645>

15 나무심기와 '자연기반해법'으로 화석연료 배출을 상쇄: 과학, 마술적 사고 아니면 순수한 PR? Redd Monitor <https://redd-monitor.org/2019/07/04/offsetting-fossil-fuel-emissions-with-tree-planting-and-natural-climate-solutions-science-magical-thinking-or-pure-pr/>

16 Griscom et al, 2017.

17 UN PRI, 2020. 피할 수 없는 산림 금융 대응: 투자기회 <https://www.unpri.org/inevitable-policy-response/the-inevitable-forest-finance-response-investor-opportunities/5906.article>

# 누가, 무엇이 자연기반해법을 주도하고 있는가

## 박스 1: 기업의 자연기반해법 발표

영국의 기후에너지정책 기관인 카본브리프(Carbon Brief)의 분석에 따르면 초국적 석유기업 '로열더치셸'(이하 셸)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경로는 석유, 가스, 석탄이 이번 세기말까지 에너지 믹스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 회사가 오랜 기간 가지고 있던 비전이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 19의 일시적인 영향 외에도 "브라질의 국토 면적에 달하는 지역"에 나무 심기와 같은 "자연기반해법의 광범위한 확대"가 중요하게 추가된 부분이다.

이탈리아의 화석연료 거대 기업인 에니(Eni)는 2025년까지 석유와 가스 생산을 매년 3.5%씩 늘릴 계획이다. 그 후 일차림 및 이차림 보전 프로젝트를 통해 일 년에 3천만 톤의 탄소 배출을 상쇄하게 되어 2050년이 되면 탄소 발자국을 80%까지 저감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에니는 아프리카에 8백만 헥타르에 이르는 면적만큼 나무를 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계획을 철회했지만, 에니는 여전히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는데 있어 자연기후해법(NCS)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 산림 보전 프로젝트는 탈탄소를 위한 중요한 전략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sup>18</sup>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영국의 자연기반 탄소저축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2020년 180만 파운드를 투자한다는 넷제로 목표를 2019년 발표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영국의 탄소 상쇄 시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sup>19</sup>

국제농업 NGO인 그레인(GRAIN)의 분석에 따르면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거대 농기업 네슬레의 글로벌 전략은 사람을 위해 지구를 위해 더 좋은 제품을 더욱 많이 소개하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100%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 공급망내에서 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자연기반해법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2023년 까지 말레이시아에 3백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한 Project RELeaf에 4백만 스위스 프랑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1년에는 미국의 주요 소성 지역에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목표도 밝혔다.<sup>21</sup>

네슬레의 배출은 대부분 공급망에서 특히 유제품, 고기, 상품작물(커피, 팜오일, 설탕, 대두 등) 구매에서 발생한다. 네슬레의 연간 Scope 3 배출은 스위스 배출 총량의 약 두 배에 달한다.

네슬레의 기후 계획은 유제품과 고기를 비롯한 기타 배출이 많은 농산품에 기반한 음식 판매를 줄이는 것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배출을 상쇄하면서 2020년에서 2030년까지 유제품과 축산품 및 상품작물의 공급이 6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22</sup>

NBS는 이 기업들에 무임승차권을 제공하고 있다-파리 협정의 기온 상승 억제 목표나 환경정의에 의거해 오염 활동을 축소해야 하는 정부와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없애 주는. 이들은 주요 확장 계획에 대응하여 탄소나 생물다양성 상쇄로서 NBS를 활발하게 로비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동시에 NBS는 나무심기 프로그램이나 탄소거래와 같은 'NBS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NBS는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기업과 대규모 임업회사, 농기업과 같은 오염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업 모델과 관행을 바꿀 필요 없이 혜택을 받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기후변화와 자연의 쇠락을 멈추고 되돌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극히 적은 탄소 예산만이 남아 있고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화석연료 배출의 원천적인 저감을 통해 긴급하게 제로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을 고려할 때 NBS 상쇄를 위한 대기의 여유 공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과 일부 국가와 금융기관의 책임 회피이자 위험한 지연 전술이다.



2015년 제 21차 파리 기후 회의 당사국총회에서 REDD로 위협받는 지역사회와 연대한 시위. © Luka Tomac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18 <https://www.eni.com/en-IT/low-carbon/forest-protection-conservation.html>

19 Heathrow 2020, 히드로 제로탄소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다. <https://www.heathrow.com/latest-news/heathrow-targets-zero-carbon-airport-by-mid-2030s>

20 <https://www.nestle.com/media/news/nestle-plants-3-million-trees-2023-malaysia>

21 <https://www.nestle.com/media/news/nestle-reforestation-americas-absorb-carbon>

22 <https://grain.org/en/article/6634-corporate-greenwashing-net-zero-and-nature-based-solutions-are-a-deadly-fraud>





## 박스 2: 넷제로 & 탄소 상쇄

네거티브 배출(negative emissions)은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된 경우 나타나는 결과이다. 간단히 말해서 배출의 반대이다.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모두 고려한 후에도 대기에서 이산화탄소가 제거된다면 공학적인 과정과 자연적 과정 모두 이론적으로 네거티브 배출을 달성할 수 있다.

예상되는 기준선 아래로 배출을 저감하거나, 회피하거나, 대기에서 탄소를 제거함으로써 탄소상쇄 크레딧이 생성될 수 있다. 상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전체적인 농도를 저감시키는 것이 아니다. 비판적으로 말하자면, 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책임이 가장 적은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고통을 받으며 기업과 엘리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배출을 계속하는 것이다.

## 자연기반해법과 자연의 화폐화

NBS는 본질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그 전개 과정은 시장 메커니즘과 다양한 방식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사용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 파리협정에 의거한 탄소시장의 정당화
- 생태계서비스와 생물다양성 시장과 상쇄에 대한 대가의 지급
- 시장 메커니즘을 위한 자산(수역, 바다 등)으로 자연의 새로운 영역을 개방-탄소로 환원되어 거래될 숲, 초지, 습지에 대한 다양성 저감과 저개발국의 토착민, 소농, 지역사회에서 거대한 자원의 침탈을 유발

기업 또는 정부의 NBS 제도의 대부분은 이미 상쇄와 탄소배출권의 생성과 연결되어 있다.

NBS는 자연보호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자연을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 하나의 해법으로 도구화하고 '자연'과 '사람'을 분리하는 잘못된 개념을 공식화한다. 생태계의 위축과 농생태학과 같은 다차원적 해법의 축소 또한 위험이다. 숲과 토지 및 생태계는 그 안에 저장되는 탄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들은 살아서 숨을 쉬고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

NBS는 자연에 대한 겸손함과 이해 그리고 존중을 의미하는 농생태학과 식량주권의 담론에서 사용되는 '자연과 함께'하는 개념 및 관행과는 대조되는 것이다. 공동체는 생태적 접근을 통한 생산을 위해 자신들의 영토와 공유지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해 왔다. 이 경우 주민들이 자신의 영토와 생태계를 포기하거나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내모는 농기업의 팽창으로 위협받는 지역 및 토착민 공동체를 보호하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필요로 한다.

## 박스 3: 자연의 화폐화: REDD와 REDD+

REDD(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는 산림전용(deforestation)과 산림황폐화(forest degradation)로 인한 배출을 저감(REDD+, '+'는 "산림 보전과 산림 탄소 흡수 능력을 향상" 시킨다는 의미이다)시키기 위해 15년 전에 UNFCCC 체제에서 출범하였다. 금전적 인센티브를 받는 주체들이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를 방지하면서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이행 후 15년간 성공이 아니라 많은 논쟁만 불러왔다. 자연을 화폐화하고 그에 대해 거래 가능한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배출 저감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없었다. 53개국 350개 이상의 REDD+ 프로젝트가 공적 재정을 통해 240억 유로 이상의 가격에서 조성되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모로코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REDD+는 "가장 논란이 많은 환경정책 중의 하나로서 정부, 시민사회, 토착민 단체들을 분열시켰고 유엔에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오염자와 일부 보전 NGO들이 기후솔루션으로 REDD+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지만, 인권단체와 토착민단체들은 REDD+의 역할이 "강탈과 자원추출을 부추기고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해법"이며 "영토에 대한 기업의 지배를 강화하고 이윤을 팽창시키는 제도"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sup>23</sup>

# 자연기반해법은 토지와 영토의 강탈을 초래한다

# 03



인도네시아 중부칼리만탄의  
팜오일 플랜테이션.  
© Victor Barro / Amigos de la Tierra

상당한 규모의 NBS 이행은 거대한 면적의 토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Griscom et al (2017)에 따르면 배출 저감의 37% 중 대략 절반을 차지하는 신규조림 '저감 경로(mitigation pathway)'는 대략 호주 면적에 이르는 7억 헥타르의 대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림경영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백만 헥타르가 넘는 산림에 대한 임업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규조림의 경우, 이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이 이를 수행한다면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림경영관리 관행의 변화는 대규모 임업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당한 규모일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큰 잠재적인 NBS 저감 경로인 숲의 완전한 보호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라는 신화를 내세우는 임업기업들과 대규모 보전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이 수행하는 지휘 및 통제 조치의 결합을 통해서만 신속하게 달성될 수 있다. NBS의 잠재적 저감 능력의 약 75%를 구성하는 산림과 관계가 있는 방식들은 임지에 대한 기업과 국가의 통제 확대와 강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기업들의 NBS 약속만으로도 엄청난 면적의 대지가 필요하다.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의 자연기반해법 부서는 적어도 2030년부터 매년 기업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중 적어도 5백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셀은 나무심기와 산림 보전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2030년까지 연간 1억 2천만 톤까지 탄소 배출권 구매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에니는 2050년까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4천만 톤을 저장하기 위해 숲에 의존하고 있다(2024년부터 연간 6백만 톤).<sup>24</sup>

이런 약속들은 소수의 석유 기업들이 탄소상쇄를 위해 필요로 하는 토지에 대한 수요를 보여준다. 한편 수백 개의 다른 대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서약을 했고 네슬레와 유니레버와 같은 기업들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같은 테크기업들 그리고 항공업계와 같은 다른 기업 오염자들 또한 지상에서 탄소저장을 위한 토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sup>25</sup>

이런 기업들이 주장하는 넷제로는 육지와 바다와 같은 자연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규모이다. 이중, 삼중, 또는 사중으로 중복된 결과이고, 아마도 잘못 계산된 것일 수 있다.



기업이 주장하는 '넷제로'는 자연이 감당할 수 없다. 호주의 원시림.  
© Amelia Collins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sup>24</sup> Ibid.  
<sup>25</sup> <https://wrm.org.uy/articles-from-the-wrm-bulletin/section1/corporate-enthusiasm-for-forest-protection-and-tree-planting-driven-by-determination-to-protect-profits-from-fossil-fuel-extraction/>





## 자연기반해법은 탄소배출 문제의 원천적 해결과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 조치를 차단한다

# 04



독일 가즈바일러 II 석탄광산.  
© Bert Kaufmann / Critical Information Collective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의 연소를 즉각적으로 줄여야 한다. 세기 중반이 되기 전에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이 위기를 자초한 선진국에서 먼저 화석연료를 완전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요약하면 ‘기름은 땅속에 석탄은 석탄갱에 매장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

배출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화석연료 업계와 농기업 같은 힘 있는 주체들은 화석연료와 온실가스 배출의 단계적 폐지에 대한 필요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넷제로’ 서약은 이들에게 공동의 무기가 되었다. ‘넷제로’의 기본 개념은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 - 제거되는 온실가스 = 0. 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배출되는 양이 대기에서 제거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커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업과 국가는 탄소를 격리하거나 탄소상쇄에 투자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계획과 서약들은 상쇄에 의존하며 이는 ‘자연기반해법’이라는 완곡한 표현 뒤에 숨겨져 있다. 박스 1에서 보여주듯이 기업들은 오염 활동을 확대시키고 그를 상쇄하기 위해 NBS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넷제로’와 NBS는 몇 가지 이유로 실제 배출 저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 탄소가 배출되고 제거되는 탄소의 흐름에만 중점을 두면 이산화탄소의 축적되는 성질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남아있기 때문에 제거되는 양보다 추가되는 양이 많아지는 불균형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더 높일 것이다. 대부분의 NBS의 예상 기간은 재앙적인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필요한 시간을 훌쩍 넘기고 있다.

- 상쇄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실제로 줄이지는 않는다. 배출은 계속되고 있고 따라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명적인 속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 ‘넷제로’의 개념은 화석과 생물학적 탄소 순환을 위험하게 얽매이게 하는데, 이는 모든 화석연료의 배출이 자연생태계에서 포집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이다. 그러나 채굴되고 연소되는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이미 생물학적 탄소 순환에서 순환하고 있는 탄소에 추가된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CBD)체제에서 발전되고 체계화되고 있는 방식은 NBS가 다른 부문의 이익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주고 있다.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는 NBS
- 사람들에게 청정한 공기와 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NBS

NBS는 생물다양성 위기 자체에 대한 솔루션으로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CBD가 답을 해야 하는 문제이다.

더 큰 우려는 ‘자연기반해법’이라는 용어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자연적’이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종과 관련된 무엇인가? CBD 체제의 주체들은 유전자 드라이브-전체 종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는 유전자 변형의 형태-를 ‘자연적’ 해법으로서 묘사한다. 단일종 식재 역시 자연적이라고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자연기반해법은 산업형 농업을 정당화하고 농생태학을 차용한다

# 05



자연기반해법은 더욱 치명적인 단일종 식재를 의미한다. 브라질 마투그로소주에서 콩을 수확하는 모습. © Kelvin Helen Haboski / Shutterstock

농업에서 NBS의 부상은 몇 가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NBS를 옹호하는 측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집약화'를 통해 거대한 면적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집약화는 산업형 농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보다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과 방법이다.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통한 식량 체계의 구조적 전환보다는 생산성, 기술 및 자본 집약적 생산에 중점을 둔다. 예를 들자면 육류의 생산 단위당 더 낮은 배출을 목표로 유전자 조작 작물의 사용을 통해 경작지를 축소하고 공장형 농업의 탄소 강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 작물은 산업형 농업을 촉진하고 육류에 대한 탄소 강도의 계산은 증산을 가정한다. 지속가능한 집약화는 산업화된 먹이사슬 전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않는다.<sup>26, 27</sup>

탄소격리 프로젝트의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NBS는 이에 대해서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sup>30</sup>

농업 생산증대를 통해 토지를 NBS에 '내어주지' 않는다면 NBS는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집약화 기법들은 기후 및 생물다양성 보호에 큰 위험이 되고 있다-유전자 드라이브, 비료 사용 증가 또는 공장식 축산 등.



케냐의 생물다양성협약 회의에서 우리의 요구를 강조하고 있는 지구의 벗과 동맹들.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속가능한 집약화 기법은 NBS로 분류되는데 탄소배출권만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법들은 근시안적인 시야와 토양의 탄소 격리를 통한 저감, 반추동물의 온실가스배출 및 바이오에너지 탄소 균형과 같은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집약화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불러온다. 따라서 NBS가 기후변화와 싸우면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집약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확실치 않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할 수는 없다.

보전 프로젝트나 상쇄를 위한 NBS로부터 대규모 토지 강탈에 대한 가능성은 사람들의 식량주권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소규모 생산자들이 아직까지 세계 식량의 대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생물다양성의 대부분을 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보고서가 대규모 조림이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네이처컨저번시(TNC)는 NBS의 농업버전으로 Ag-NBS를 홍보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산업형 모델의 추진 요인이나 그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다루지 않고 보전농업, 영양최적화, 개선된 플랜테이션 관리와 같은 일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해법을 재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31</sup>

NBS의 매력은 민간 부문 투자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투자자들은 또한 자연기반해법에, 특히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보고 있다. 3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공동 관리하는 62개의 자산 소유자들과 관리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약 70%의 글로벌 자산관리자들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임업 및 토지 이용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표했다.”<sup>32</sup> 은행과 같은 채권기관은 금융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NBS 활동이 채권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기회라고 여기지만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가 깊게 뿌리내릴 수 있다.

농업에서 NBS는 사회운동, 시민사회, 전문가, 유엔기관의 진보적 요소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농생태학 요구에 대해 농기업과 그 지지자들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Ag-NBS는 농생태학의 쓸모없는 버전이다. 생산성과 시장기반해법에 대한 현 상태의 기업의 통제와 집착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NBS에 의거해서 소농 운동에 의해 발전된 농생태학 모델은 농기업, 화학회사, 금융기업, 소비재 기업에 의해 빠르게 차용되고 있다. 생태적 관행과 같은 농생태학의 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기업의 기술과 지적재산권, 시장 상품 및 상쇄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식량 생산자들은 소외되기 십상이다.<sup>33</sup>



아마존의 산림파괴. © istock



모잠비크 나마차의 농생태학적 농업.  
© Amelia Collins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26 ‘지속가능한 집약화’에 다시 의미를 두다.’ *Frontiers in Ecology and the Environment*, 12(6) <https://esajournals.onlinelibrary.wiley.com/doi/10.1890/130157>

27 식량안보와 영양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체계를 위한 농생태와 다른 혁신적인 접근법, HLPE, CFS July 2019 <http://www.fao.org/3/ca5602en/ca5602en.pdf>

28 [https://www.foodandwaterwatch.org/wp-content/uploads/2021/04/Oppose-GCSA-2021\\_Final-2.pdf](https://www.foodandwaterwatch.org/wp-content/uploads/2021/04/Oppose-GCSA-2021_Final-2.pdf)

29 <https://www.etcgroup.org/whowillfeedus>

30 IPCC, 2018. 기후변화와 토지. 기후변화, 사막화, 토지저하, 지속가능한 토지관리, 식량 안보 및 육상생태계 온실가스의 흐름에 대한 IPCC 특별보고서.

31 <http://www.fao.org/land-water/overview/integrated-landscape-management/nature-based-solutions/en/>

32 Ibid.

33 농생태학 차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https://www.foei.org/resources/publications/junk-agroecology-food-systems>



# 자연기반해법은 사람들의 주권과 권리를 위협한다

# 06



2019년 마드리드 제 25차 당사국총회에서 탄소 시장과 같은 잘못된 해법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하는 지구의 벗과 동맹들.  
©Victor Barro / Amigos de la Tierra

많은 연구에서 NBS의 성공은 토착민과 지역사회의 지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및 기타 권리를 실제로 인정하는 중요한 조치를 NBS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지 분명치 않다.

IUCN은 토착 **지식**이 NBS를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네이처컨저번시(TNC)의 NBS 이론에는 권리와 사용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최근 출판된 IUCN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글로벌 기준'에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과 함께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권리, 사용, 접근이 인정되고 존중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순전히 자발적인 것으로 준수 여부는 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될 수 있다.

NBS에 '안전장치'를 추가한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NBS는 토지 강탈과 대기업 친화적인 보전 프로젝트를 지향한다. '안전장치'를 준수하는 것이 이행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덧붙여지는 경향이 있다.

NBS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진짜 원인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포장된다. 사실상 NBS는 위기를 심화시키고 토착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델을 통해 불평등과 기업 권력을 영속화한다.



지구의 벗 팔레스타인의 Abeer Al Butmeh 이 2018년 제네바에서 유엔의 구속력 있는 조약 (UN Binding Treaty) 의 협상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환경에 대한 이스라엘의 범죄와 관련된 기업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 Victor Barro/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07

## 시스템 전환을 위한 진정한 해법



지역사회 산림관리(CFM)은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고 농생태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고, 산출을 늘리고 토양에 탄소를 저장한다. 지역사회의 농생태학 및 농림업 프로젝트,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부리강.  
© Amelia Collins /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 빛은 NBS를 거부하고 시스템 전환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한 해법은 상쇄와 NBS 없이도 이미 존재한다.<sup>34</sup>

기후위기에 대한 분산화된 해법이 이미 존재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해법은 토착민, 지역사회 및 소농에 의한 생태적, 자율적 관리, 전통지식 및 거버넌스에 기반하고 있다. 농생태와 지역사회 산림관리(CFM)<sup>35</sup>를 예로 들 수 있다. CFM은 자연에서 탄소를 저장하는 산림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농생태는 화석연료 이용을 저감하고 산출을 증대시키고 탄소를 토양에 저장한다.

CFM은 선조들이 물려준 관습적 관행에 기반하고 있고 NBS 같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치 않다. 남아있는 온전한 그리고 부분적으로 온전한 생태계의 80%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CFM이다. CFM은 자원이용과 관련하여 적절한 기술과 선조들이 물려준 지식 및 지역사회의 관행을 통합한다. 또한 지역사회가 자신들의 영토와 자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행사할 기회이기도 하다. 심각한 사회적 불의를 유발해온 산업형 임업과는 완전히 다른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식량주권의 틀 안에서 농생태학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권리침해 및 토지 강탈의 중요한 원인인 산업형 농산품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다. 또한 배출을 크게 저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공공재에 대한 집단적 권리와 접근을 보장하면서 소규모 식량 생산자들이 식량을 생태적으로 생산하게 해주는 정치적 접근법을 아우른다.<sup>36</sup>

토지에 대한 집단적 권리와 우리가 '영토'라고 부르는 것에 관련된 권리-물에 대한 권리, 자기결정에 대한 권리, 여성의 권리와 이들이 CFM과 농생태학에서 개념화되는 방식-은 환경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데 중심이 된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및 소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시급하게 협력해야 하고 단계적 폐지의 핵심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 에너지 주권, 에너지 민주주의, 공공재로서 에너지, 모두를 위한 100% 재생에너지, 공동체 소유의 재생에너지와 같은 원칙들을 포함하여 에너지 시스템을 전환시킴으로써 기후정의를 향한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초국적기업(TNCs)을 통제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제가 필요하고 기업에 의한 인권과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곳마다 정의에 대한 접근과 보상 및 생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부가 할 일은 환경, 사회, 젠더, 인종, 경제 및 사람 중심 정의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34 어떤 경우 다른 그룹들이 우리가 여기서 서술하는 해법들을 NBS라고 묘사할 수도 있다. 이 용어(지역사회 산림관리, 농생태 등)를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사용하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지구의 빛은 결코 NBS를 진정한 해법으로 보지 않는다.

35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체계를 위한 농생태학과 다른 혁신적 접근법, HLPE, CFS 2019년 7월. <http://www.fao.org/3/ca5602en/ca5602en.pdf>; Community Forest Management - An opportunity to preserve and restore vital resources for the Good Living of human societies, FOEI, April 2018. <https://www.foei.org/resources/publications/community-forest-management>

36 식량안보와 영양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체계를 위한 농생태학과 다른 혁신적 접근법, HLPE, CFS 2019년 7월. <http://www.fao.org/3/ca5602en/ca5602en.pdf>; 농생태학의 10가지 요소, FAO, 2018 <http://www.fao.org/3/i9037en/i9037EN.pdf>; 농생태학을 위한 국제포럼 선언 말리, 닐레니 2015년 2월 <https://www.foodsovereignty.org/wp-content/uploads/2015/02/Download-declaration-Agroecology-Nyeleni-2015.pdf>

자연기반해법

# 지구의 벗 입장문

10월 | 2021



## FRIENDS OF THE EARTH GROUPS AROUND THE WORLD



### Africa

Cameroon  
Ghana  
Liberia  
Mali  
Mozambique  
Nigeria  
Sierra Leone  
South Africa  
Tanzania  
Togo  
Uganda

### Asia Pacific

Australia  
Bangladesh  
East Timor  
India  
Indonesia  
Japan  
Malaysia  
Nepal  
Palestine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Russia  
South Korea  
Sri Lanka

### Europe

Albania  
Austria  
Belgium (Flanders & Brussels)  
Belgium (Wallonia & Brussels)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ng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Estonia  
Finland  
France  
Georgia

Germany  
Hungary  
Ireland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lta  
Netherlands  
North Macedonia  
Norway  
Poland  
Russia  
Scotland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 Latin America and Caribbean

Argentina  
Brazil  
Chile  
Colombia  
Costa Rica  
Curaçao  
Ecuador  
El Salvador  
Grenada  
Haiti  
Honduras  
Mexico  
Paraguay  
Uruguay

### Canada and the US

Canada  
United States

[www.foei.org](http://www.foei.org)

*mobilise resist transform*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Secretariat  
P.O.Box 19199, 1000 GD Amsterdam  
The Netherlands

tel: +31 (0)20 6221369  
web[at]foei.org  
Follow us: [twitter.com/foeint](https://twitter.com/foeint)  
[facebook.com/foeint](https://facebook.com/foeint)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